



5면

전주시 노인회관 효자동-진북동 이전 개관

# 전주매일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음 3월 19일) 제300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송하진 도지사, 정계 은퇴 선언

“내편, 내편 없이 우리편  
전북을 더 자랑스럽게

컷오프 서운함은 있으나  
민주당 덕·은혜 입어  
당 떠날 일 없을 것”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8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등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속내를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자 공천심사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8일 전격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7일 밤 민주당 재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날 오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경선 등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속내를 밝혔다.

송 지사는 먼저, ‘사망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직접 준비한 원고를 담담하게 읽어내려갔다.

송 지사는 “한참 부족한 저를 크게 믿어주신 도민들께 감사하다”면서 “우리 전북을 하늘만큼 사랑하고 제가 자존의 전북인임을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병철한 머리로 일하는 유능한 행정가이자 따뜻한 가슴으로 일하는 착한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했다”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도하며 살았다”고 고백했다.

송 지사는 “이제 정치를 떠나고자 한다. 이제 저에게는 내편, 내편은 없고, 우리 편만 있을 뿐”이라며 “자랑스러운 전북을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제가 우리 전북을 위해 정성으로 일할 수 있도록 몸과

맘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으로 살아남아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덧붙여, “떠오르는 아침 해와 아름다운 저녁노을 사이 새들은 하늘 높이 날고 꽃들은 저리도 밝게 피었다”며 “저에게 책임 지워진 기간 동안의 일은 끝까지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러면서도 송하진 지사는 질의응답을 통해 마음 한 구석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컷

오프에 대해 “왜 아쉬움 없겠느냐”고 반문한 뒤 “과거 전주시장 두 번, 도지사 두 번을 수행해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덕과 은혜를 입었다”면서 “하지만 마지막 한 번의 서운함 때문에 당을 떠나거나 뒤에서 욕을 하고 당적을 옮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또 “오늘 같은 일이 일어 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당의 결정에 대한 충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결코 (공천배제 결정)을 수용한다는 것은 아니고, 당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조용히 물러남으로서 갚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송 지사는 함께 해준 정치적 동지이자 지지자들에게 대해서는 “저와 함께 해 온 동지 중에 어설피게 정치를 한 사람은 없다”며 “스스로 자연스럽게 뜻을 모아 나갈 것이고 또 그러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특히, 자신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도지사로서 두 달이 더 남았다”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최근 3년 같은 기간보다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18% 개선됐다고 18일 밝혔다.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m³로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평균농도 29.5㎍/m³ 대비 16%(4.8㎍/m³)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12%(3.3㎍/m³)를 상회했다.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15㎍/m³이

### 전북도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 '톡톡'

미세먼지 16% 감소, '좋음' 일수 3년 연속 개선

하인 '좋음' 일수는 전년 같은 기간 30일 대비 39%(10일)이 증가했고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평균 23일 대비해서는 무려 73%(17일)이 증가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 같은 기간 누적강수

량은 38%(162.5 → 104.4mm), 강수일수는 5%(41 → 39일)가 감소하고, 3월에는 몽골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 유입 등 불리한 기상 여건 속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는 이번 제3차 계절관리기간 동안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전북지방환경청 등과 함께 공공소각시설 2개소에 대한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 방지시설 최적 운영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 배출했다. 또한, 도내 주요도로를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90.97대)을 통해 기준을 초과한 차량 11대를 개선토록 했다. /유호상 기자

## 글로벌 펫푸드 기업 김제에 공장 증설

로알캐닌, 전북도·김제시와 투자협약 체결  
2025년까지 2100억원 투입·생산량 확대

50명 이상 직접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주원료로 쌀 활용, 도내 연관산업 활성화 기여

전북도가 18일 전북도청에서 신원식 도 정무부지사, 쿠산 페르난도(Kushan Fernando) 로알캐닌 김제공장 총괄책임자, 신미란 김제시 경제복지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의부기업 로알캐닌 코리아와 공장증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반려동물 가구 수 증가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높아진 펫푸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증설 및 설비를 확충하고자 추진됐다.

MOU에 따라 로알캐닌코리아는 기존 김제공장에 오는 2025년까지 2,100억원을 투자, 생산량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최첨단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전북도와 김제시는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로알캐닌은 세계적인 식품기업인 마스(Mas)그룹 소속으로, 1988년 프랑스에 설립된 글로벌 펫푸드업계의 리더기업이다.

견종과 묘종이 각각 다른 영양 성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착안해 일반 펫푸드와는 달리 반려견과 반려묘의 개별적 나이, 품종, 생활습관, 체형, 건강상태 따라 영양학적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영양사료를 공급하고 있다.

로알캐닌 김제공장은 지난 2018년 말 생산을 시작으로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만, 홍콩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 9개 국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반려동물 시장 점유율 최초로 3,000만불(2020년), 5,000만불(2021년) 수출의 탑을 수상해 K-펫푸드 글로벌 확산에 기여했다.

이번 로알캐닌의 증설투자로 50명 이상의 직접일자리 창출과 연관산업 집적화 등으로 간접고용 증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수출 지역 확대로 무역수지 개선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품의 주원료로 쌀 가금류 등을 사용하고 있어 도내 연관산업 활성화 및 펫푸드 업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쿠산 페르난도 로알캐닌코리아(유) 김제공장 총괄책임자는 “로알캐닌코리아는 2018년 김제공장의 문을 연 이후로 국내 펫푸드 업계 1위를 달성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어왔다”며 “이번 증설 투자를 통해 앞으로도 김제시가 K-펫푸드의 진정한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과 기업 간 상생을 위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미란 김제시 경제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결심한 로알캐닌코리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신원식 도 정무부지사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펫푸드시장에 발맞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김제공장이 아시아태평양지역 펫푸드 생산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면서 “전북도와 김제시는 오늘 협약을 체결한 로알캐닌코리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개발공사**

언제나 도민과 함께 **전북개발공사**

풍요와 희망이 넘치는 전라북도를 위해 전북개발공사가 있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